



## 나눌수록 커져가는 우리들 세상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나눔 이야기를 통해  
따뜻한 온기를 느껴보세요.



새 생명의 기쁨을

너는사람들

Winter

2016 VOL. 73

# Korea Marrow Donor Program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나눔 이야기



#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홈페이지  
<http://www.kmdp.or.kr>



블로그  
<http://blog.naver.com/kmdp0311>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kmdp0311>



인스타그램  
[http://www.instagram.com/kmdp\\_official](http://www.instagram.com/kmdp_official)

##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을 원하신다면

- ① 신청자격 : 나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건강한 남·여
- ② 신청장소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905호  
서울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 2·7호선 대림역 1번 출구 ☎ (02)737-5533
- ③ 접수시간 : 개인인 경우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방문 ) / 단체인 경우 ( 사전에 전화로 협의 후 출장신청 )

※ 방문 시 사전에 협회로 전화하여 확인 후 방문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사랑들

## Vol. 73

2016 겨울 이야기(통권73호)

2016년 11월 18일 발행

발행인 민우성

편집인 이양화

발행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55 905호

TEL. 02-737-5533

FAX. 02-737-5336

E-mail : kmdp@kmdp.or.kr

홈페이지 : www.kmdp.or.kr



## Contents

# 2016 WINTER

### 04 전문가 칼럼

나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과 교수 유철주

### 사랑을 나눕니다

06 좋은 일을 하게 된 행운에 감사합니다 (강은영 님)

08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황호선 님)

### 항상 고맙습니다

10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 이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소아환우회)

12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수현(가명) 님의 어머니)

### 현장 STORY

14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 충남대학교병원 이수진 코디네이터

16 함께 나눌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 이식조정2팀 황유정 코디네이터

### 좋은 소식 전합니다

18 KMDP NEWS

20 2016 제15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 Thanks Your Love

22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등록 캠페인

24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실적

26 2차 재발환자 지원

27 '징검다리'에서는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8 함께 나누는 분들

29 따뜻한 사랑을 나눠요

30 Q&A : 조혈모세포기증에 관한 모든 것!

31 개인정보변경 및 독자투고 안내





## 나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유철주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소아혈액종양과 교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조혈모세포이식을 담당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조혈모세포가 준비되지 못했을 때 이보다 더 아쉽고 안타까운 일은 없는 것 같다. 환자에게 줄 수 있는 공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라면 차라리 포기하고 말 텐데 합당한 공여자를 찾았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로 줄 수 없는 상황을 접하다 보면 여간 실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수년 전 잘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문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본인의 장성한 딸이 골수 기증을 하려고 한다는데 승낙을 해주어도 되는 건지? 전신 마취를 하고 골수를 채취한다는데 안전한 것인지? 특별한 후유증은 없을지? 만약 본인의 딸이라면



시키겠느냐? 다 알아봐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질문이 계속 이어졌다. 물론 나의 답은 평소에 생각하였던 대로 정답만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이후 지속적으로 나를 망설이게 하였던 것은 과연 내 딸이 같은 상황이었어도 꽤히 승낙하였을까? 였다. 만약 내 딸이 골수 기증을 머뭇거린다면 나는 거침없이 남을 위한 일이니 고민하지 말고 골수 기증을 하라고 할까? 물론 그렇겠지 하면서도 영 자신이 없었다. 최근에는 그나마 골수가 아닌 말초혈액으로 채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결정이 훨씬 수월할 것 같다.

나는 그보다 더 이전에 내가 치료하고 있는 나이 어린 백혈병 환자를 위해 골수 공여자를 찾느라 고생한 적이 있었다. 국내 공여자는 기증을 거부한 상태였고 다행히 대만에서 공여자가 확인이 되어 세밀한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결과 합당하여 골수를 기증 받게 되었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기증을 동의하는 비율은 60% 정도였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90%가 넘는 대부분의 경우 기증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놀란 적이 있다. 이유인 즉 종교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남을 위한 희생은 소중한 것이고 언젠가는 보은(報恩, 그만큼의 은혜를 받게 됨)된다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 대만의 국민성이 참 부럽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았다. 당시 기증자도 영락없이 동의를 하여 무사히 골수이식이 진행되었다. 대만으로부터 채취된 골수가 항공편으로 공수된 날 나는 뜻밖에도 같이 동봉된 편지를 받게 되었다. 곱게 접힌 편지에는 손으로 직접 쓴 한자로 된 글이 곱게 쓰여 있었다. 어떤 내용인지 번역하여 듣게 되었는데 본인의 골수를 기증받게 될 환자를 위하여 완쾌되어 병이 잘 낫게 되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한다는 내용이었다. 그 마음이 하늘에 전달되었는지 골수 이식은 성공적이었고 어린 아이는 완쾌되어 지금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는 많은 바람과 소원을 가지고 있다. 여러 사람이 간절히 바란다면 그 바람과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나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왔다. 10년 전만 해도 치료할 수 없었고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가 지금은 치료 가능하고 건강을 되찾아 오랜 동안 정상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강은영 님은 2016년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을 실천해 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강은영 님께 지면을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 좋은 일을 하게 된

기증자 **강은영** 님(40대, 여)

- 간단하게 하시는 일과 성함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주에 살고 있고 제주도청에 근무하는 강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웃음)

-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셨나요?

사실은 저도 잊고 지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났어요. 지난 1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때 기억이 난거죠.(웃음) 그래서 여쭙어 봤더니 1996년도 인가? 대략 20년 전에 제가 당시 가톨릭재단에서 주최하는 어떤 행사에 참가해 헌혈을 하고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때 처음 신청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 일치한다고 연락이 왔을 때 당시 기분은 어떠셨어요?

당시 20년 전이니까 핸드폰이 없을 때 신청했기 때문에 사무실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먼저 조혈

모세포은행이라며 일치하는 환자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듣자마자 대답했던 말이 '어머나!'였어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생기는구나 하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이었죠.

- 기증을 결정한 계기는?

전화 받고는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협회 직원 분이 당황을 하셨어요.

확답을 하시기 전에 가족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상의를 했고 처음에는 남편이나 부모님께서 좀 위험한 게 아니냐며 걱정을 했지만 흔쾌히 허락했어요. 생각해보니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협회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 기증이 끝나고 바뀔 거 같은 점이 있다면?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가장 컸고 '내가 정말 큰 일을 했구나' 이번 일을 통해 어떤 위안이 될 것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인터뷰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행운에 감사합니다



같이 앞으로 좋은 일에 계속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웃음)

### ●●● 조혈모세포를 기증 받으시는

수혜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전달이 되는지 자세히는 여쭙어보지 않았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나누어줌으로써 저랑 똑같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환자분들이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수혜자분들께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 ●●● 많은 분들이 기증을 망설이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일단 기증을 한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조혈모세포 기증이 위험해지지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생사가 걸린 문제잖아요. 앞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더 자신 있게 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감사드리고 많이 걱정했을 가족에게도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황호선님은 2014년 말초혈조혈모세포 기증을 실천해 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후기가 되었으면 한다면 소중한 마음으로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 보이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

기증자 **황호선**님(40대, 남)

처음 코디네이터 분께 연락을 받은 때는 여름이었습니다.

기증등록을 하고 6년이나 지났기에 잊고 있을 수도 있는 시간이었지만 당시 바쁜 와중에도 기억이 생생할 정도로 임팩트가 강했고 애타게 기다리던 소식을 전해들은 기분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그저 운이 좋았고, 좋은 일 하게 되어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다' 정도의 자기만족에 뿌듯해 했다면 2년째가 되니 뒤늦게 알게 된 주변의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는 분들과 기증자로서의 다양한 심경 변화를 말씀드리고 싶어졌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자부심으로 처음에는 내심 즐겁기만 했지만 대부분의 기증자들이 그렇듯 가족들의 동의가 쉽지 않아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아내의 반대가 가장 심했습니다. 하지만 친형이 의사라 가족 모임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아내 역시 어렵지만 설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전자가 일치하여 기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본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과 시간 등을 우선 고려해야 했습니다. 아쉽게도 저희 회사 역시 '비혈연간 장기기증'에 대해 유급휴가 규정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드리고 코디네이터님의 도움을 받아 근거 서류를 마련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에서 휴가를 일주일이나 허락해주었고 이후 저로 인해 회







##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 후배도 수월하게 휴가처리를 받았다고 하니 내심 보람 있었습니다.

기증을 하고 난 이후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것은 생활 습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수혜자가 젊은 학생이라는 말을 들은 이후부터 회식에서의 음주도 자제하고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기증 후 반년 이후부터는 다시 헌혈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건강한 습관은 이제 저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다른 기증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증절차는 정말 쉽게 끝났고 몸에 부담도 전혀 없었습니다. 회사는 입원 당일 까지 근무하고 밤에 입원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실제 휴가는 이틀만으로도 기증이 가능했습니다. 그나마도 기증 당일만 하루 종일 병원에 있었고, 삼일째에는 아침에 퇴원할 수 있어서 병원에 대한 기억은 하루 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는 추가로 받은 휴가 덕분에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생겼습니다.

기증을 하면서도 협회에서 챙겨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 감사하고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이후부터 '기증자의 날' 행사에 초대해주어 덕분에 딸과의 좋은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딸에게 기증에 대한 교훈도 말해줄 수 있어 뿌듯했습니다. 다양한 행사와 기증자 모임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더욱 의미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일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을 느끼게 되어 더욱 '감사'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협회의 코디네이터 분들, 혈액관리를 해주시는 분들, 시술하시는 의사 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 된 결과로 기증 절차가 진행되고, 이식이 완료되고, 치료의 길로 가는 것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혼자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없었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스스로 겸손해지게 되었습니다. 9년 전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던 지도교수님에 대한 마음의 부담도 조금이라도 덜게 되었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 이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 서울대학교병원 소아환우회

이 글은 2016 제15회 조혈모세포기증 감사의 날에 서울대학교병원소아환우회에서 기증자님들께 감사드리기 위해 써 주신 글입니다. 소중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증자님의 조혈모세포를 받고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큰 병은  
우리 가족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조혈모세포를 이식하지 않으면 회복될 확률이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담당 의사선생님의 말씀은 정말 세상의  
해, 달, 별이 떨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그날 아이를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이젠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누구보다 건강해 보였던 아이가, 학교에서 열심히 뛰어 놀던 아이가,  
이렇게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이런 병이 걸렸다니...

뒷자리에서 함께 가던 아이가 내 목을 끌어 앉고 '나 때문에 우는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정말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  
가슴이 많이 답답했습니다.

아이 언니와의 불일치로 인하여 일치하는 기증자를 기다리면서  
저희 가족은 매일 초조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생겨나는 피부의 붉은 반점과, 복통, 굶주림, 갑작스런  
호흡곤란, 쓰러짐, 고열,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일어났을까 하며  
하늘에 대해 원망도 많이 했고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미안해하는 저에게 오히려  
'옆에서 돌봐주고 챙겨줘서 고맙다'는 아이의 위로의 말에  
다시금 용기를 얻고 일치하는 기증자님을 기다렸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 선생님을 통해 전달받은 100% 일치하는  
기증자가 있다는 소식에 저희 가족은 정말 날아갈 듯 기뻐했습니다.  
천사 같은 분의 사랑이 다시금  
우리 가족의 행복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이런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아이는 병원에서 퇴원하고 그동안 먹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도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학교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기억이 어렴풋해졌던  
아이가 건강했던 시절들이 다시금 떠오르며  
앞으로의 일상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혈모세포기증 감사의 날을 빌려  
다시 한 번 저희 아이와 가족에게 귀한 선물을 해 주신 기증자님과  
도움 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나누어 주신 이 축복을 다른 모습으로  
이웃과 나누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의 마음과 축복을 가득 담아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 항상 행복한 가득하시기를

# 일만 바랍니다

수혜자 최수현(가명)님의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난해 드디어 병원에서 종결파티를 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학교에 다닐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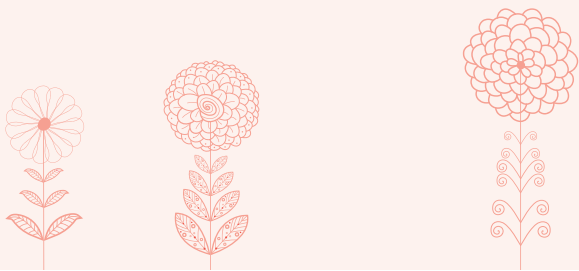
처음 아이가 많이 아파서 응급실로 가 진단을 받았을 땐  
정신도 없고 하늘이 무너질 듯하고 숨조차 쉴 수 없이  
고통스러운 날을 보냈습니다.

몇 달을 울기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행히  
조혈모세포가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조금씩 희망을 되찾고  
아이만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랑스런 아이이기에 크면서  
속 한번 썩인 적 없고 착한 아이이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우리 가족 모두 너무 힘들었지만 기증자 님 덕분에  
이렇게 어려운 고비를 무사히 잘 넘겼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한시라도 기증자 님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렇게 가끔 저희 아이의 소식을 전하는 게  
최소한의 예의라 생각하고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병원에만 있을 때는 아이도 많이 힘들어하고 바라보고 있는  
저 또한 힘들었는데 이제 집에서 생활하니 성격도 많이 밝아졌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적응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신경 많이 쓰고  
앞으로 바르고 착한 아이로 잘 클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정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잊지 않고 살 것입니다.

어머님에게도 이렇게 훌륭한 당신 덕분에  
한 가족이 살 수 있었다는 말씀을 꼭 전해 드렸으면 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분과 인연이 되어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아이가 아직 어려서 다는 모르지만  
제가 설명해 주었더니 우리 아이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모두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게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출근하자마자 급한 서류가 있어 암센터 외래 입구에 들어서자 앉아 계시던 중년의 부부가 일어나 허리를 구부려 제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십니다. 민망한 저는 더 허리를 굽혀 배꼽인사로 답례를 합니다. 이 순간이 무척 고마우면서도 민망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진료대기를 기다리면서 낮익은 얼굴들이 저에게 눈인사를 하십니다. 모두 이식을 하셨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로 한 번씩은 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대학교병원 혈액분반실에서 조혈모세포채집과 이식조정 그리고 기증자 관리 등의 일을하고 있는 이수진 간호사입니다. 처음 신규간호사로 첫 발령 받은 부서가 마침 그 해에 신설된 조혈모세포이식병동이었습니다. 물론 그 후 다른 부서에도 있었지만 조혈모세포이식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에서 다시 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슨 우연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식병동에서 일할 때에는 이식 전체의 과정을 세세히 알지 못했고 경험과 배움이 부족한 신규간호사인 제게는 그저 환자분이 입원하시면 무균실에서의 항암치료와 무균처치, 간호가 가장 크고 어려운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조혈모세포채집과 이식조정 업무를 동시에 하게 되면서 무균실에 입실하기 전에 많은 과정을 통과해야 이식을 할 수 있으며, 매순간이 산을 하나 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식치료가 결정된 환자와 가족들이 설명을 듣기 위해 혈액분반실을 방문했을 때의 불안함과 기대가 섞인 눈빛은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비혈연 기증자의 유전자검사 결과를 환자의 것과 확인하는 순간은 언제나 떨렸고 누구보다도 일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숫자 하나에 환자 가족들과 같이 실망하기도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끔 이식 진행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식을 했어도 힘겹게 치료를 이어나가는 가족들을 지켜볼 때는 그것이 마치 제 탓인 것처럼 힘들기도 했다가 밝은 미소로 덕분에 잘 지낸다는 안부를 전하는 환자분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저 지켜보기만 하는 저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충남대학교병원 조혈모세포이식센터  
이식조정간호사(코디네이터) 이수진

이렇게 힘든데 환자 자신과 가족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이 일을 하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혈액분반실에서 조혈모세포채집도 같이 하므로 기증자와 수혜자 각각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고,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기증자들의 수고와 아름다운 마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끔 혈연이식이나 자가이식을 하시는 분들이 조혈모세포이식을 해야 한다고 의료진에게 들었을 때 엉덩이에서 조혈모세포를 뽑는 줄 알고 걱정을 하거나 형제분 같은 경우는 잠시 고민을 했었다는 말씀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조혈모세포이식이 드라마나 영화 소재로 종종 사용되기도 하고 많이 홍보가 되어 당연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은 것을 보니 더 열심히 정확하게 설명하고 알려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이식 전 혈액분반실에 미리 오셔서 조혈모세포채집 과정에 대해서 듣고 혈액성분채집기 등을 보고 안심을 하면서 가시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끔씩 다시 조혈모세포이식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것에 마음이 힘든 적도 있었지만 희망을 품고 어려운 치료를 견뎌내고 있는 환자분들과 선뜻 수고로움을 감수하고 환자분들의 회복을 바라며 조혈모세포를 기증해주시는 기증자분들에게서 오히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더욱더 열심히 희망을 품고 환자분들과 함께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

# 함께 나눌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코디네이터 **황유정**

”





안녕하세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 황유정입니다.

협회에 들어와 코디네이터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조혈모세포 기증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한 기증, 이러한 나눔을 기증자분들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을까 하고 많은 궁금증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만약

일치가 된 기증자라면 기증이라는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이런 결정을 선택 내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인지 이렇게 따뜻한 순간을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혈액종양내과 암병동에 일하게 되면서 조혈모세포 기증과 이식에 대한 관심은 조금 가지고 있었지만 그저 막연한 관심이었을 뿐 기증이 어떻게 진행되고 무슨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들어와 기증자를 찾는 것부터 기증자를 만나고 실제 기증까지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나니 어느 하나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 기증자 분들과 만나면서 따뜻한 마음과 생명의 씨앗을 나누는 순간을 경험하며 우리나라는 살만한 곳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앞으로도 만나게 될 따뜻한 마음들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마음이 커져 나갑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점점 더 각박해져가는 우리의 삶의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반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은 아직 좋지 않은 편입니다. 점점 더 개인이 질병에 걸릴 확률은 높아지고 있고 또한 가족 수마저 점점 줄어 일치자를 찾는 데 더 어려운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나눔이 필요한 순간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될 텐데 아직 기증에 관한 예우가 미흡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좋은 나눔을 위해 기증자분들이 많은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분들이 조혈모세포 기증 그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기에 이러한 상황도 점점 더 나아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어느덧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바람이 차가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며 건강 조심하세요!

앞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

## 2016 제15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시행



2016년 10월 15일 과천 서울랜드에서 제15회 조혈모세포기증 감사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어 주신 조혈모세포 기증자, 기증희망자, 의료기관 그리고 유관기관 등 다양한 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소중한 시간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시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상세 내용 P 20-21)

02

## 2016년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방안 심포지움



2016년 7월 2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세미나실에서는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모집과 관련된 기관들이 모여 기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움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를 위한 강의와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홍보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토의를 통해 앞으로 조혈모세포 기증 홍보의 방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더욱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03

## 2016 World Marrow Donor Day(WMDD)



2016년 9월 17일은 World Marrow Donor Day(세계 조혈모세포 기증자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는 약 2,500만 명으로 다양한 국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WMDD를 통해 세계 52개국에서는 여러 이벤트가 이루어졌는데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서는 기증자분들을 대상으로 '웃찾사', '줄탄썰우'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 WMDD는 9월 16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 04

### 푸르덴셜 착한 프로젝트 공모전 활동보고회 및 표창장 수여

2016년 7월 27일에는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이 지원하는 푸르덴셜착한프로젝트 공모전의 활동보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서울, 대전, 대구, 울산 각 1팀씩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중 많은 도움을 준 서울 Challengers팀과, 대전 미친녀석들 팀에게 협회장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다른 팀 분들과 푸르덴셜관계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KMDP

## NEWS

## 05

### 대학생 서포터즈 2기 피로회복 - 봉사활동 & 워크숍(소아암 NGO한빛)



2015년 7월 2일과 3일 KMDP 대학생서포터즈 2기 '피로회복' 친구들과 함께 봉사활동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은 소아암NGO한빛의 소아암 환자 쉼터 '사랑하우스' 청소 봉사활동으로 시작하였는데요.

실내외 청소와 화단 청소 등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준비해 간 간단한 선물을 증정해 드린 후 워크숍 장소로 이동하여 그동안의 서포터즈 활동 사항 점검 및 차후 계획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끝나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 06

### 제21차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하계학술대회 참석

2016년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된 제21차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국내의 우수한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치료방안들을 모색하여 난치성혈액질환자들이 더욱 올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도 모든 환자분들이 완치되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Special Story

## 2016 제15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 Thanks Your Love

지난 2016년 10월 15일 토요일, 과천 서울랜드에서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후원하는 '2016 제15회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이 진행되었습니다.

1994년 최초 '성덕 바우만과 서한국 님' 으로부터 시작된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은 올해에도 많은 분들이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행복한 새 생명을 만들기 위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Thanks Your Love'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조혈모세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분들을 비롯하여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모집기관, 채취센터, 이식기관 및 유관기관 그리고 후원자 분들까지 약 6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1부 행사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홍보대사 한준호 (MBC 아나운서) 님의 진행으로 조혈모세포이식사업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서울성모병원 BMT센터, 한양대학교병원 엄혜정 코디네이터 님, 서울대학교병원 김향선 코디네이터 님, 한국교와하코

기린, (주)도향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감사장이 수여되었으며, 이어서 서울대학교병원 소아환우회 주순남 대표 님이 나오셔서 기증자님들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KBS 개그맨 정범균 님의 사회를 시작으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홍보대사 김명국 님의 인사, 초대가수 최인식(히든싱어 '윤민수' 편), 이상택(히든싱어 '박진영' 편)의 축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서울랜드 곳곳에서 <사랑의 캘리그래피 나눔 행사>와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협회는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어 주신 많은 분들이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증자, 기증희망자 그리고 참석해주시고 도움주신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신청을 원하는 분들이 계신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 조혈모세포기증 캠페인 (5월 ~ 10월 활동내용)

#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계명대

2016. 05. 12

2016. 05. 12

배화여대



2016. 09. 09

강동대



2016. 08. 20

해운대  
해수욕장



2016. 07. 10

울산  
젊음의 거리

한국전력  
서울지사

2016. 09. 09



강동대  
물리치료과

2016. 08. 31



광화문역

2016. 07. 31



1군단

2016. 09. 12



한동대

2016. 09. 28~29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  
(KOTRA)

2016. 10. 06



2016. 09. 26~27

안동  
과학대



2016. 10. 04

아주대  
병원



2016. 10. 15

서울랜드





2016. 05. 14~15



2016. 05. 18



2016. 05. 23~24



2016. 05. 16



2016. 05. 18 ~ 19



2016. 05. 26



2016. 07. 09



2016. 06. 23



2016. 06. 01



2016. 06. 24



2016. 06. 09~10



2016. 05. 30



2016. 10. 24



2016. 10. 25

**함께** 해주신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착한공모전' 대구 나 이네드, 대전 美친녀석들, 서울 Challengers, 울산 누리봄팀 과 배화여대, 강원대, 서울대 의과대학, 강동대, 안동과학 대, 한동대, 한국전력 서울지사, 1군단, 국군고양병원, 6181부대, 대 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5678서울 도시철도, 해운대구청, 앤 젤리너스커피, 서울랜드, 건국대학교병원 장기이식실, 아주대학교 병원, 국무조정실등 기쁨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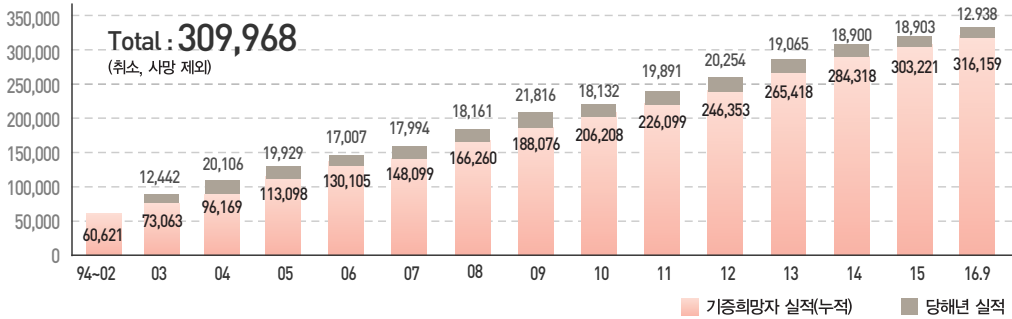
※ 개인 및 단체 조혈모세포 기증희망 신청 문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02-737-5533 (내선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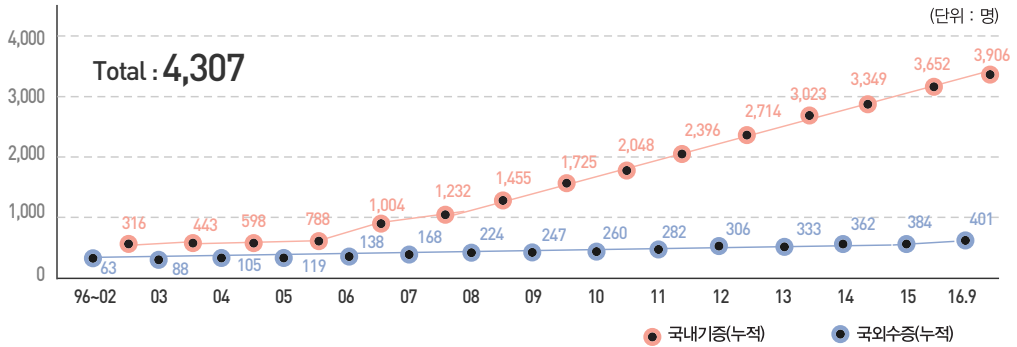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및 이식 실적

## 조혈모세포(골수)기증희망자 등록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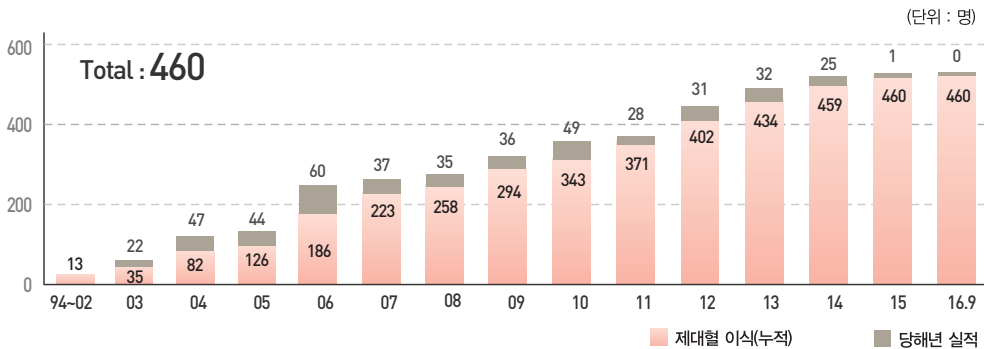
자료제공 : 장기이식관리센터 (단위 : 명)



##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실적



## 기증 제대혈 이식 현황



※ 상기자료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통한 실적임.

※ 제대혈은 2014. 10. 1.부터 국내 일부공급을 중단,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관리함.





# 조혈모세포 2차(재발) 이식 및 DLI 치료비 지원합니다

- ♥ 지원대상 : 우리 협회를 통해 이식받은 후 재발하여 우리 협회를 통해 2차 이식 혹은 DLI를 시행하는 환자
- ♥ 지원금액 : 금 일백만원 정 (₩ 1,000,000)
-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작성 후 우편접수
  - ※ 접수처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905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재발환자지원 담당자 앞
  - ※ 지원서 양식은 각 병원 혹은 협회로 연락주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 ♥ 지원기간 : 2016년 연중 (심사 후 지급)
  - ※ 선발된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 문의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획홍보팀 02-737-5533 (내선 110)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Korea Marrow Donor Program



한마음  혈액연  
한마음 혈액연



# 사랑을 실천하고 기쁨을 나누는 징검다리 동호회

‘징검다리’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기증을 실천한 분들의 모임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후 아직 ‘징검다리’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한번 가입해 보세요! 새 생명의 기쁨 나눔을 실천하신 많은 분들을 만나는 이야기의 장이 되어 줄 것입니다! **‘징검다리’는 기증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지역별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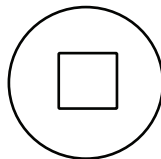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 안내

페이스북 그룹(<https://www.facebook.com/groups/1605998819677212/>)  
‘징검다리-조혈모세포 기증자모임’을 통해 기증자 동호회 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월(3월~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많은 기증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공지는 페이스북그룹(징검다리 - 조혈모세포 기증자 모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서울·경기 총무  
이상수 010-8910-6427
- ▶ 대전·충청 총무  
임재영 011-9421-5936
- ▶ 부산·울산·경남 총무  
이호영 010-8889-5723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대하여 이 지면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6. 05. 01. ~ 2016. 10. 30.

## 1. 기업후원회원



## 2. 모바일후원회원

후원액	회원명 (가나다 순)
3천원 (문자후원)	3139, 7483, 1986, 1986, 2956, 5856, 3612, 6805, 5980, 2173, 8286, 3330, 4288, 0975, 6126, 6784, 8755, 6880, 6880, 1810, 0452, 3984, 6303, 0622, 2758, 1773, 3942, 9313, 4335, 7524, 1874, 2532, 6368, 6276, 5054, 9563

## 3. 일반후원회원

월정기후원액	회원명 (가나다 순)
1천원	김미경, 이형주
5천원	김홍필
1만원	김성준, 박신애, 이경화, 서익준
2만원	신해모, 윤진식, 장지은
2만 5천원	권인경
3만원	김라웅, 박수봉, 이대우
4만원	장재식
5만원	엄기섭
10만원	김안자, 최대권, 비엘엔에이
2백 50만원	익명

## 4. 정기후원회원

월정기후원액	회원명 (가나다 순)
1천원	강슬기, 김수호, 김은진, 유연철, 이은지, 임지훈, 전수진
2천원	김기선, 김미란, 박상실, 박세림, 박수경, 오덕교, 원자연, 유승수, 이상현, 이언옥, 이웅섭, 이재영, 이정희, 임명희, 전동완, 호인걸, 황금연
3천원	김명자, 김미영, 김선정, 김수동, 김지연, 양철호, 이태찬, 이형희, 임민규, 전도석, 조성호, 홍유선
5천원	강동우, 강용래, 강원구, 강지영, 강지원, 강형석, 고현아, 고현중, 권희영, 김대중, 김미소, 김미현, 김미희, 김민지, 김성준, 김순영, 김예래, 김은숙, 김은실, 김은혜, 김진관, 김창범, 김 희, 노승호, 류선옥, 박미라, 박상현, 박설화, 박시원, 박윤희, 박정민, 박주형, 박천우, 박태진, 박하늘, 배효진, 서광화, 성진기, 신미란, 양 컨, 오현숙, 원형식, 유영철, 육전수, 윤현미, 이금주, 이동호, 이상기, 이상우, 이수경, 이수현, 이정호, 이지영, 이하슬민, 이하승, 이현아, 장경호, 장영석, 정경순, 정달영, 정성미, 조남희, 조미현, 조정희, 차종철, 차형덕, 최은정, 최유니, 최윤철, 최은진, 하세린, 한수옥, 한지훈, 함경지, 홍경석, 홍희숙, 황왕연, 황원철, 황은선, 황정환, Team BBC, 그린팬티
6천원	권정미
7천원	정은장
1만원	강득록, 강인보, 강순희, 고영일, 공미아, 공성진, 공지현, 구세중, 권명순, 권정도, 김권중, 김기희, 김남호, 김도희, 김병주, 김봉규, 김병한, 김상철, 김상희, 김석철, 김성중, 김성철, 김세진, 김수정, 김애선, 김영재, 김유리, 김윤희, 김은아, 김인숙, 김정수, 김정현, 김진우, 김진웅, 김태임, 김태현, 김태환, 김학기, 김현엽, 김혜정, 김희선, 노규동, 노영림, 문변영, 민병호, 박강희, 박상용, 박석환, 박성윤, 박세용, 박승노, 박승원, 박안나, 박인걸, 박인태, 박찬영, 박준명, 박하늬, 박혁철, 박현세, 방국희, 배원선, 백승진, 복창수, 설화순, 성주현, 송병덕, 송지성, 송철호, 신명준, 안진혁, 안효섭, 양병관, 여해숙, 연철수, 오수현, 오현아, 우영택, 유번림, 윤미정, 윤공관, 이기환, 이민욱, 이민호, 이상민, 이상환, 이서현, 이석영, 이성규, 이영재, 이영재, 이영호, 이은진, 이은희, 이재식, 이재현, 이지연, 이지혜, 이창환, 이한나, 이혜정, 이화영, 이효식, 장지연, 전성대, 정기업, 정기운, 정승혁, 정영권, 정정선, 정정숙, 정진영, 정혜나, 정형윤, 조규섭, 조덕진, 조동형, 조한승, 주영애, 차선옥, 차종주, 채은석, 천소영, 천진원, 최미월, 최연화, 최용혁, 최지혁, 한성심, 한성호, 한승희, 한연숙, 한원배, 한윤탁, 한혜란, 함정은, 한정희, 현 진, 홍혜경, 황대만, 황 용, 엠엔에프코리아(주)
1만 1천원	김현백, 이종무
1만 2천원	김성수, 임보나
1만 5천원	문정숙, 박소라, 송진솔, 오지연, 임한삼, 허란경
1만 6천원	정희선
2만원	고윤석, 김경심, 김주성, 명전식, 박금란, 서태호, 신용호, 신용환, 오홍범, 이석준, 이윤진, 이재수, 조근수, 한보석, 홍민지
3만원	김범중, 김정환, 문형곤, 배인귀, 서동진, 신진경, 양진식, 유은경, 이경희, 이동훈, 이혁중, 임재영, 조현식, 최우석, 최승관, 지성문화제작사
4만원	이경숙
5만원	김종명, 김희원, 박봉태, 박영재, 이상림, 이정경, 정효식, 황유성, 오피스플러스
10만원	이재길, 최관호

# 후원 회원을 모집합니다

## 회원 구분

**정기후원회원** : 매달 1구좌 천원 이상을 자동이체(계좌이체, CMS등)를 통해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

**일반후원회원** : 불특정적으로 일시 후원해 주시는 분(회수, 금액에 제한 없습니다.)

**단체후원회원** : 협회의 사업과 재정에 현저한 기여(1회 100만원 이상)를 한 단체(일반, 법인 사업체 등)

## 후원금 납부방법

**CMS 자동이체** :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가입신청서 협회로 발송(E-mail : KMDP@kmdp.or.kr / FAX 02-737-5336, 5337 / 우편) ➡ 전화 통화 본인 확인 ➡ 등록완료 ♥CMS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은행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매달 자동으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CMS 등록을 위해 성함,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 출금일, 예금주를 명확히 적어주세요. ♥신청서는 홈페이지(www.KMDP.or.kr) ➡ 나눔공간 클릭 ➡ 후원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클릭 혹은 협회로 연락주시면 바로 전달해 드립니다.

**은행 자동이체** : 거래은행 방문 ➡ 매달 약정액 자동이체 신청 ➡ 협회로 유선연락(02-737-5533) ➡ 가입신청서 작성 ➡ 가입신청서 협회로 발송 ♥은행 자동이체는 본인이 직접 거래 은행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입금계좌 참고) ♥거래 은행을 가실 때, 통장, 거래인감,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는 분은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자동이체 하실 수 있습니다.

**지로 납부** : 협회로 연락(우편 또는 전화 02-737-5533) ➡ 협회 확인 후 지로용지 발송 ➡ 지로용지 작성 후 거래은행 납부

## 후원 계좌번호

입금하신 분의 성명 또는 단체명을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금주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국민은행	827-25-0014-731	농협	047-17-002467	우체국	010017-01-01359
우리은행	004-649426-13-001	신한은행	140-003-278130		

##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 우리 협회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1-261호에 의거 “공익성지정기부금대상단체”로 등록되어, 후원해 주신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연말정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정보(필수기재사항)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번호)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전화번호		
E-mail		

### ■ 출금이체 신청(필수기재사항)

계좌 정보	은행 /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주민등록증상의 생년월일			
예금주 연락처	예금주와의 관계				
후원 금액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 기타( 원)				
출금일	□ 10일 □ 25일				

### ■ 기관정보 및 정보제공 동의

성명 (단체명)	선택사항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선택사항
----------	------	---------------	------

### ■ 기관정보 및 정보제공 동의

기관명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고유번호	105-82-09113	수납요금종류	후원금
대표자	민우성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905호		
전화번호	02-737-5533(111) 기획홍보팀	메일	kmdp@kmdp.or.kr	팩스	02-737-5336,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구수납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이메일, 주소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로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후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관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수사항)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주)이티비메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휴대폰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제공받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수사항) 동의함 □ 동의안함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리미티드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협회 소식지 및 각종 홍보물(기념품 등) DM 발송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신청인과 예금주가 다를 경우) 예금주 : 인 또는 서명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소]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DM 발송 서비스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제공받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 DM발송 등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동의함 □ 동의안함 □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

- 기부금은 법인세법 24조와 소득세법 34조에 의거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록 관련 업무에 활용 목적
- 수집항목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 폐기 요청 시까지 보관 : 정보 폐기 후 폐기에 관한 기록 1년간 보관
- 신청자는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의 해당 업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택사항) 동의함 □ 동의안함 □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 통지 안내]

은행 등 금융회사 및 금융결제원은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 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세지, 유선 등으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및 해지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상기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동의하며 CMS 출금이체를 신청합니다.



## 조혈모세포기증에 관한 모든 것!

###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 하는 것을 모아모아! 알려드립니다

#### 나의 조혈모세포를 받는 분을 알 수 있나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정한 업무처리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환자와 기증자는 서로 신상정보를 교환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협회를 통하여 간단한 편지글 정도는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자에 대한 보상, 혜택은 없나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은 기증자의 자발적 의지로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위해 나누는 사랑 나눔의 실천입니다. 따라서 다른 금전적인 혜택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2조(장기 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2항에 근거하여 기증을 위한 신체검사 또는 입원기간에 대하여 공무원 은 병가, 공무원외 근로자는 유급휴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의 범위에 '골수 조혈모세포'만 포함 시키고 '말초혈 조혈모세포'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조혈모세포 채취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 기증을 할 때 채취방법을 기증자가 선택할 수 있나요?

조혈모세포 채취방법은 성분헌혈하듯이 채취하는 말초혈조혈모세포채취법과 마취 후 엉덩이뼈에서 주사기로 채취하는 골수조혈모세포채취법이 있습니다. 이식받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특정한 방법으로 기증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기증자가 채취방법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 기증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변경 및 독자투고 안내

주소와 연락처가  
바뀐 경우  
꼭 변경해 주세요!



기증희망등록이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주소, 연락처 변경을 꼭 해주세요.  
그래야만 기증희망자님과 유전자 (HLA)형이 일치하는 환자분이 나타났을 때 바로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통해 꼭 변경해 주세요. (단, 한국조혈모세포 은행협회 기증희망등록자만 정보수정 가능)

-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  
www.kmdp.or.kr 접속 → 개인 정보변경 신청 클릭 → 변경내용 기재 → 확인
- 전화로 변경하기 :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02-737-5533, 내선 112)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본 소식지를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보내주실 내용은 조혈모세포 기증경험, 백혈병 등의 환자 투병수기, 조혈모세포 이식 및 조혈모세포 기증 캠페인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일반교양, 사회교육, 수필 등 모든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는 우리나라의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이식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수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기부해 주세요!

수혈로 인한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백혈병 및 혈액질환 환자들은 조혈기능 저하, 혈소판 감소 등으로 인해 치료과정에서 수혈이 꼭 필요합니다. 기부해주신 헌혈증은 자원규정에 따라 혈액질환으로 치료중인 소아 및 성인 환자들에게 보내집니다.

헌혈증 기부 문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02-737-5533, 내선 110)

보내실 곳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55,  
905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기증증진팀 앞